

뇌과학과 불교와의 접점 모색한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5월 30일 '불교와 뇌과학' 세미나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로 손꼽히는 '명상'의 과학적 접근과 연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서구학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뇌과학'으로 대변되는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저변에는 서구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정신적 가치의 하락, 그에 따른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명상을 통한 내면적 성찰 등 복합적 요소가 담겨 있었다.

이런 학계의 흐름 속에 종합학교인 동국대와 중앙승가대가 힘을 모아 불교의 명상과 뇌과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주요대학의 석학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업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중욱)과 중앙승가대 산학협력단이 봉축기념 학술세미나로 5월 3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불교와 뇌과학' 세미나에서는 불교의 명상과 깨달음 등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본격적인 시도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먼저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의 '불교와 뇌과학으로 조망한 자아와 무아' 발표가 진행된다. 김성철 교수의 경우 진화생물학, 뇌과학에 대한 불교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뇌과학 연구를 위한 기계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어 △김현구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분별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최종남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의 '유식사상과 뇌과학에 관한 연구' △구마노 히로아키 일본 와세다대 뇌과학연구소장의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심리치료의 뇌과학적 이해' △위 에지엔동 중국 중산대 철학연구소장의 '뇌

과학 연구에 대한 선수행 관점에서의 성찰' 등이 발표된다.

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중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중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서양에서는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중·일 석학 5명 주제발표 선수행 등의 과학적 연구 공개

중요를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하는 종교학이 태동되면서 종교 체험 그 자체에 대한 연구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체험이라는 요소가 가지는 주관적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설명과 기준 제시의 불명료성 때문에 연구가 그리 활발하

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근래 들어 뇌파 및 뇌영상 촬영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면서 뇌과학, 혹은 신경과학, 인지과학 분야에서 종교적 신비체험, 선(禪) 체험 등을 하는 인간의 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연구가 신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불교와 뇌과학은 공히 동일한 주제, 즉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의미가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존재 행위는 우리에게 뇌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마음'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불교를 흔히 '마음공부'라 지칭하기에 뇌를 연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한 방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담장과 꿀뜩으로 만나는 사찰 풍경

5월 29일~6월 27일 고산문화센터서... 27점 선보여



심상사전동우회가 제26회 사진전을 연다. 작품은 강진형의 지리산 화엄사의 담장

심상사전동우회가 제26회 사진전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고산문화센터에서 5월 29일~6월 27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찰 내 담장과 꿀뜩을 주제로 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은 그동안 대중들에게 주목 받지 못하는 꿀뜩과 담장이 가지는 여러 선들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심상은 "꿀뜩은 이제 거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절 한쪽에 남

아 옛날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담장은 사찰의 영역을 지켜주는 중요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사찰의 소중한 풍경들을 앵글에 담아 보았다"며 취미를 설명한다.

또한, 심상은 6월 29일~7월 5일 청계천 광고갤러리에서도 전시를 연다.

정혜숙 기자

한국 선묵화 근현대 흐름 한눈에

5월 28일~6월 3일 백악미술관서... 동성 스님 등 35점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선묵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작품은 동성 스님의 선화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대표 동성)는 선묵미술의 일맥인 선묵과 선화의 근현대 역사를 조명하는 '한국의 선묵화 근현대 흐름전'을 개최한다. 5월 28일~6월 3일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경봉 스님, 석주 스님, 서웅 스님, 성륜 스님 동성 스님 등 20명의 스님 작품에 오제봉, 이명우, 석도륜 작가 등이 참여 총35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 대표 동성 스님은 "이제 불교는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양식을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는 진정한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대안을 불교의

문화와 예술에서 찾고자 한다"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들이 한국의 선묵, 선화에 대한 근현대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는 한국불교문화예술의 위상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대중적 역할을 결집하고, 불교문화의 학제적대비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됐다. 각종 연구사업, 학술발표, 세미나, 창작활동, 작품발표, 전시회 등은 물론 인류와 세계가 희망하는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선암사 승선교 등 도자화로 펼쳐

오만철 초대전 아라아트센터 6월 2일까지

국내 첫 '도화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오만철 작가의 초대전이 6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흙과 불의 사랑은 얼마나 눈부신가'라는 주제로 55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전복, 진안 마이산의 사계절은 물론 선암사 승선교, 티베트의 풍경 등을 도자기 위에 그림으로 펼쳤다.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 도자기 또는 도자기판에 그림을 그려 이색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백자도판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마이산 절경을 그려 곁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 앙상한 가지마다 눈꽃이 핀 설악산의 겨울 풍경은 정갈하고 단백하다. 진달래의 분홍빛으로 물든 백자도판의 봄 풍경은 따뜻한



오만철 작가의 초대전이 6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품은 선암사의 승선교를 도자화로 옮겼다.

도자 위에 산수화로 장르 개척 산사의 자연으로 '힐링' 전해

현해널 때 희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작가의 작품은 철화자기가 대부분으로 불과 철의 조화를 극적으로 표현, 깊이 있고 묵직한 향기의 도화작품이 만들어진다. 가마 속 온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철성분의 염료가 백자도판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긴다.

자연은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간결하면서 일필휘지(一筆揮之)의 힘으로 춤추듯 그려낸 우리의 산수(山水)는 도화작품으로 재해석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찬불가 열창대회 13개팀 열띤 경합

종은빛 풍경소리가 주최하는 2015 찬불가 열창대회가 5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본선에는 5월 15일 예선전을 거친 1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참가팀은 △강수혁 이광호(수원사) △곽대원 박경순(정각원) △곽명옥(조계사) △박미영 외 3인(여래사) △심정민(개운사) △작은바람(용화사, 월인사, 석림사) △장영심(대관음사 서울도량) △정효성(조계사) △이정희(장안사) △이재섭(각원사) △이영숙(여래사) △이해련(청련암) △로터스코러스(능인선원) 등이다.

종은빛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예선전에 참여한 20팀 중 13팀을 뽑았다. 너무나 실력이 정쟁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



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했고 포크송에서 전형적인 가곡 또는 가요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찬불가를 보여주었다. 첫 행사치고 너무도 만족스러웠고 향후 연주 행사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불교중앙박물관 불전 장엄전 개막

불교중앙박물관 2015년 특별전 '불전장엄(佛殿莊嚴), 불교 푸른 장엄의 세계' 전시 개막식이 5월 14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불전을 장엄하는 다양한 장엄구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새겨보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현존하는 조선 전기의 유일한 불교 패인 안성 칠장사 원패, 뛰어난 자수기법이 확인되는 순천 선암사 용문자수탁의 등 보물 7점, 전체 143점의 불전장엄관련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전시는 8월 16일까지다. (02)2011-1960 정혜숙 기자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 봉축 리본

▶ 지하철현수막

▶ 봉축현수막

세로거치형 현수막

▶ 종이등표

▶ 종이주름등

▶ 가야비연등

▶ 차걸이

▶ 고급 칼라연등

▶ 설화등

▶ 가야공단등

▶ 비닐만일등

2015 연등 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법보시 염주

어린이 합장주(6mm, 7mm, 8mm)

1 2 3 7 8

오색 합장주

8

경면주사 합장주(6mm, 7mm, 8mm)

4 5 6 9 10

합장주

10 11

경면주사 108염주(6mm, 7mm, 8mm)

▶ 봉부처님오신날 축

▶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불교장엄용품 전문

가 야 기 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